



● **우리들의 징성 (10. 28 ~ 11. 03)**

연중 제31주일 헌금	7,768,650 원	감사헌금	김형길	이종목	조혜순
교 무 금	20,225,000 원				

**금주 교무금 내신 분**

강균민	김선주	김창용	박영희	양우권	윤석정	이선복	이철우	정원석	최선봉
강상목	김소은	김현옥	박우순	양유리	윤애리	이선숙	이한석	정운택	최영성
강심원	김영	김형길	박은정	양혜영	윤현자	이선정	이한호	정형식	최유진
강안순	김영미	김형배	박의부	엄영자	이강순	이성룡	이해선	정호영	최윤자
강일기	김영숙	김혜숙	박정순	여강은	이경순	이영재	이희승	정희철	최정숙
강지선	김예빈	김화정	박지현	염동권	이경애	이영희	임금자	조경환	최주환
강지호	김용건	김효중	박태훈	오세은	이경원	이옥순	임동열	조도선	최향규
강철수	김용식	문영자	박현정	오영희	이경자	이원주	임정재	조문화	추유식
곽성숙	김용준	문정식	방준하	오제욱	이계경	이윤정	임현성	조영옥	탁명남
권기문	김유석	박경애	배기문	우미선	이귀주	이의신	임화숙	조주연	하은주
권영교	김윤전	박경자	백미경	우혜진	이기정	이재찬	장필예	조현진	한남기
권희섭	김은경	박기호	변은구	원명숙	이덕재	이재현	전은주	조형원	한수진
김 강	김은영	박내룡	서병기	원용대	이동호	이정순	전찬석	조혜순	호리카와
김계원	김익환	박문희	서주원	원은영	이민정	이종목	전희숙	조혜순	홍대영
김길자	김일환	박민흠	설예자	유석윤	이병욱	이종숙	정경미	주구레	홍승옥
김만자	김임균	박성재	송희경	유성순	이보련	이종윤	정경하	진옥레	홍정숙
김명준	김재정	박성준	심규철	유정아	이복성	이주경	정덕인	최동배	화승주
김미성	김종해	박성희	안경자	유지영	이상로	이주은	정동근	최두림	황인식
김상금	김진형	박숙희	안규호	유진호	이상은	이주형	정병만	최미애	
김석남	김찬호	박승원	양승자	윤병민	이 선	이종식	정아람	최상훈	

**[신앙단상] 내일의 신을 등반하는 법 - 김민주 에스디**

첫째 아이의 이탈리아 초등학교 입학식에서 교장 선생님은 그림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15세기 안드레아 델 베로키오 공방(1470~1475)에서 그린 토비아와 천사 그림이었습니다. 그림 속에선 눈먼 아버지를 대신해 길을 떠나는 아들 토비아를 라파엘 대천사가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부모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세요. 천사는 소년을 밀지도 끌어당기지도 않습니다. 같이 걸어갑니다. 아래를 보세요. 자갈밭입니다. 천사는 돌을 치워주지 않았습니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에게 돌을 만나게 해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직접 돌을 대면해야 합니다. 그들이 배우고 성숙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오늘의 돌들이 내일은 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산을 만날 때, 아이들은 등반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의 어려움을 치워주지 마세요. 아이들이 17세 정도가 되면 사춘기가 옵니다. 사춘기가 된 아이들은 문제가 닥치면 포기하고 외면하려 합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부모들은 실망하죠. 하지만 그건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탓입니다. 아이들의 돌을 빼앗아버렸기 때문에 아이들은 스스로 어려움을 대면하고 올바른 질문을 하고 자신에게 맞는 답을 찾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아이들에게 삶의 방식을 보여 준 적이 없습니다. 나 자신을 깊게 들여다보고 생각해야지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나를 알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이라는 여행을 통해 우리 자신을 알아가야 합니다. 질문은 중요합니다. 질문은 언제나 우리를 더욱 깊이 들어서도록 합니다. 위기는 아이들을 성장시킵니다. 아이들은 어려움과 함께 머무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아이들의 자갈을 빼앗으면 안 됩니다. 제발, 돌을 치워주지 마세요!”

부모가 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자갈을 치우는 것보다 자갈을 치워주지 않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라는 것어요. 성경 속 길을 떠나는 토비아를 보고 우는 어머니 안나에게 아버지 토빗이 말합니다.

“그러자 토빗이 대답하였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는 건강한 몸으로 갔다가 건강한 몸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요. 이 아이가 건강한 몸으로 당신에게 돌아오는 날을 당신 눈으로 볼 것이요. 그러니 여보, 걱정하지 말고 이 사람들 때문에 염려도 하지 마시오. 선하신 천사께서 토비아와 함께 가실 터이니, 이 아이는 여행을 잘 마치고 건강한 몸으로 돌아올 것이요.’ 그러자 그 여자는 울음을 그쳤다.”(토빗 5,21-22; 6,1)



부모가 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비록 자갈만 보일지라도 그 위를 걷는 걸음 곁에 천사가 손을 잡아주고 있다는 것어요. 오늘도 이 이탈리아 땅에서 어려움과 함께 머무는 법을 배워나갑니다.